

문화특집

부안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편식 예방 인형극 공연 성료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경자)는 등록시설 어린이 850여명을 대상으로 27~28일 양일 간 부안예술회관에서 편식 예방을 위한 인형극 '로보로미의 건강 대 작전'을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신나는 음악, 율동과 잘못된 식습관 및 위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문화체험 기회는 물론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안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하려고 이번 인형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등록 어린이 급식소 36개소(1317명)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지난 26일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8월부터 2018·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미래 성장 동력 구축과 지역 경제발전, 그리고 복지증진 사업 등의 국가 예산 사업 발굴 활동에 주력하여 모두 42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정읍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2018~2019년도 추진 미래성장동력·복지증진 사업 등

정읍시는 지난 26일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8월부터 2018·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미래 성장 동력 구축과 지역 경제발전, 그리고 복지증진 사업 등의 국가 예산 사업 발굴 활동에 주력하여 모두 42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사업이 36건에 총 사업비 4,694억원, 2019년도 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193억원이다.

중장기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3건에 총 사업비 665억원, 환경부소관 사업이 9건에 총 사업비 433억원, 국토교통부소관 사업이 4건에 총 사업비 2,646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참양 이삼만 산생 기법관 조성(총 사업비 80억), 특색 산촌관광 자원화 사업(총 사업비 100억), 정읍 첨단과학(RFT)산단 국가 산단 지정(총 사업비 2,500억), 식물 인공재포 지원 센터 구축 사업(총 사업비 170억), 축산 선도 인력 육성 및 한우 연구 센터 건립(총 사업비 300억) 등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정부 정책 등을 분석하여 올해 말까지 철도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대형 SOC사업과 체험형 관광 사업, 지역 특화 복지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의 발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양질의 국책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규 발굴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공동체협의회,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정읍시공동체협의회(회장 유연필, 이하 공동체협의회)가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공동체협의회는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170여 개 공동체로 구성돼 있으며, 프리마켓과 공동체 페스티벌, 장터 운영, 나눔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각종 프리마켓과 장터를 운영해 적립한 기금이다.

유연필 공동체 협의회 회장은 "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지역공동체들이 그 간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지역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상동지구대 범죄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는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려고 지난 25일 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관계자, 통장, 입주자대표, 지자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동 지구대 김종기 팀장은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최근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아파트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통장 이씨는 "아파트 주민과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다양한 민원 해소에 동참하는 모습이 좋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희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성덕면, 영농 현장방문 행정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마비지가을 추수로 바쁜 영농현장을 방문하며 열린 면정을 실천했다.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농자재 가격의 가파른 인상, 쌀값 하락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자칫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더불어 면사무소에서 직접 준비한 시원한 음료수와 새참을 준비해 나눠먹으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행정을 홍보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랜드그룹 김스클럽 임원 초청 우수 농수산물 품평회

부안군, 30여곳 생산품 대상

부안군이 관내 우수 농수특산물 품평회를 27일 부안 읍사무소에서 이랜드그룹 김스클럽 임원들을 초청해 가졌다.

이날 품평회에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오상훈 이랜드그룹 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농가 및 6차 산업 업체 등 30여 곳의 생산품에 대한 우수성과 김스클럽 관측 행사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안군과 김스클럽은 이번 품평회에서 선별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오는 12월 초 1주일 간 김스클럽 강남점에서 판촉행사를 한 후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품목은 상설 입점·판매기로 협의를 마쳤다.

특히 김스클럽 관계자들은 "부안의 신선 농수산물과 품소젖갈, 참뽕오디 관련 제품들은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다"고 호평해 향후 제품 입점·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부안군 조용환 농업경영과장은 "부안 농수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라 도매시장에 위치한 가라 물 2개 점포를 임대해 12월 중 입점하게 된다"며 "수도권에 온·오프라인으로 상설판매망을 가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매결연도시와 직거래장터를 정례화 하는 등 부안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빛그림자 공연으로 초대

김제시 JG작은도서관, 내일 오전 개최

김제시 JG작은도서관(부영목욕탕 2층)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꿈놀이가 축제다.

꿈놀이가 축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작년 북 콘서트에 이어 올해는 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 빛그림자 공연으로 진행된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소가 된 사람의 누우침을 담은 내용으로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무대 앞에서 듣는 생생한 소리와 빛을 이용한 그림자 표현은 이야기에 더 빠져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빛그림자 공연 외에도 먹거리, 체험, 이벤트 코너 등을 마련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JG작은도서관에서는 이번 꿈놀이가 축제 외에도 성인반을 위한 독서토론회와 독서모임, 유치부 책놀이, 초등학생 저학년 책놀이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JG작은도서관(부영목욕탕 2층)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꿈놀이가 축제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총력 쏟아

정읍시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복권기금과 시비 총 2억8천만원을 투입, 추진 중이다.

당초에는 7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개입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여 104세대로 대폭 늘었다.

현재까지 98세대에 대한 지붕 개량과 도배·장판과 싱크대를 교체했고 창호 시설 등을 지원했다.

시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사업도 동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 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소년 문화탐방 시리즈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 홍보 포스터

"청소년 문화공감 함께해요"

김제문화예술회관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 기획 프로그램

2016년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탐방 시리즈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 기획 프로그램이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김제중학교 외 3개 학교 1,6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연장 시설투어 및 공연관람, 자체 학예 발표회 등을 체험하기 위해 예술회관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학교 수업에만 치러왔던 아이들에게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과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여 학교는 10월 27일 13:00분 김제중학교, 11월 15일 14:00시 김제여자중학교, 11월 16일 15:00시 김제중학교, 11월 24일 15:00시에 만경여자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본 사업 취지는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공간의 이해 및 공연 예술 체험 등을 통해 문화 소용과 소질 개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확산으로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편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된 공연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12일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푸른 정원 가을맞이'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계절 푸른 정원 체험 프로그램 인기

정읍농기센터, 내달 10일까지 식물 탁본·포푸리 만들기 등 체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12일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푸른 정원 가을맞이'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사계절 푸른 정원(이하 푸른 정원)'은 기술센터가 센터 내 700㎡에 조성한 정원이다.

시민과 기술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내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이 곳에는 향기정원과 유실수원, 관엽 및 색채 정원, 다육 식물원, 수습습지 생태원 등이 조성돼 있고, 200여종의 초화류와 목본류가 심어져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내달 10일까지 운영되는데 원내치료가 강사로 나서 정원 내 다양한 초화류와 목본류를 안내하고 식물 탁본, 화관과 포푸리

(potpourri)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소정의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부담해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7개 어린이집 262명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7개 어린이집(110명)이 예약돼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양한 꽃과 식물이 조성돼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향기를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 정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되며, 자율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단체 방문 시 미리 접수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